

담배연기 없는 근무환경

신 동 천

최근 크게 문제시 되고 있는 실내공기오염(indoor air pollution)의 가장 큰 원인으로 담배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발암물질을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물질들은 니코틴, 벤즈피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포름알데히드, 입자상물질등 4천가지 이상이어서 담배를 직접 피우거나 간접적으로 연기를 마시는 경우에는 어떠한 오염된 공기를 마시는 것보다 더 해롭다고 할 수 있다.

사무직 근로자들의 생활이 대부분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냉난방이 필요한 계절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창문을 밀폐함으로써 실내공기오염을 가중시키게 된다. 따라서 창문을 자주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시키는 일은 오염상태를 낮추는데 가장 손쉬우면서도 중요한 일이 된다.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비흡연자에게도 간접흡연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1987년 동경에서 개최되었던 '흡연과 건강에 관한 제 6 차 세계회의'에서 보고된 '담배연기 없는 근무 및 작업환경의 창조(Creating a smoke-free working environment)'라는 논문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경험을 말해주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산업보건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1983년 노동행정당국에서는 '산업보건안전법'을 입법화하여 작업장 환경은 근로자들의 건강에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작업장내에서 흡연을 금지시키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건강에 위험이 없는 환경이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므로 작업장내에서의 금연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문제이지만 흡연자 자신도 건강을 위하여 흡연을 중지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 산업장내에서의 흡연은 산업장내의 여러가지 화학물질의 흡입과 상승적으로 작용하여 인체에 더 큰 피해를 주게 된다. 예를들면 근로자가 석면에 노출되고 있으면서 흡연을 하는 경우 폐암의 위험도가 석면노출이나 흡연 어느 하나에 단독으로 노출되는 경우보다 훨씬 높다.

흡연을 하는 근로자가 비흡연 근로자에 비하여 결근율이 두배 높고 결근일수로 보면 1년에 5.5일이 더 많으며 병가일수도 평균 8일이 더 많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이것은 흡연자가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등의 독소에 의하여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되어 더 자주 앓기 때문이다.

흡연자는 작업장에서 안전사고율이 두배가 높다는 보고도 있는데 이것은 근무중 또는 작업중 담배 피우는 행위로 인하여 정신집중이 잘 안되기 때문이라 설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 금연운동을 하거나 흡연을 제재하는 이유는 첫째 본인의 건강과 둘째 비흡연자들에 대한 간접흡연으로 부터의 보호 그리고 셋째는 작업의 효율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이미 직장내 혹은 작업장내에서 흡연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도 많이 있으며 작업장 뿐 아니라 학교, 관공서, 병원등의 공공건물, 비행기, 버스, 택시등의 공공교통시설내에서 금연을 선포하거나 흡연지역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서울올림픽에서는 금연올림픽을 실시 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항공기내에서 금연하도록 하였고 서울시 지하철역 구내도 금연지역으로 선포되었라 한다. 이러한 단계에서 더 발전하여 공공장소, 작업장내에서도 금연이 실시되기를 기대해 본다.